“한 표라도 더”…광주·전남 후보들, 막판 표심잡기 총력

전통시장·종교시설 방문 유동인구 찾아 유세 매진

생활밀착 현장 등 공략 거리서 지지 호소 눈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김광만 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통합교육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막판 표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전통시장부터 대형상가 집중 유세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31일 영암 정신약국 오거리에서 합동 유세전을 펼쳤다. 오후에는 전북 전주에서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 제주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전날에는 완도와 무안, 목포를 차례로 방문해 서남권 집중 유세를 전개했다. 완도 오일장 합동유세를 시작으로 무안 남악, 목포 용해동을 찾아 민주당 원팀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이날 광주 월드컵경기장 유세를 시작으로 광주 전 지역 차량 유세를 진행했다. ‘득표율 30%’를 강조하며 주요 상권과 생활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직접 만나 민생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청취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고향 곡성을 찾아 석곡장을 시작으로 목사동면, 옥과면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광주로 이동해 봉선동, 주월동, 진월동에서 시민을 만났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일당 독점 정치를 비판하며 진보당을 제2당으로 키워줄 것을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새벽 노동현장 방문과 전통시장 행보에 이어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 마라톤대회 인사, 성당 방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 인사 등을 진행했다. 그는 내란정당 심판론과 공천 파행을 불러온 민주당의 독점 정치를 모두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담양버스터미널과 죽녹원 등에서 주말 유세를 진행한 뒤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주말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는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생활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 후보는 전날 수완호수공원 줍깅 행사에 참여해 보행환경과 생활 불편 요소를 점검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발견한 데이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AI 기반 생활정치 구상을 앞세워 유권자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하남교회 인사, 수완동 하나로마트 사거리 및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차량 유세를 하며, 수완동 먹자골목에서 순회 인사를 했다.

전날에는 수완·첨단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종교시설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첨단동·신가동·수완동 등지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전날에는 수완동과 첨단지구를 중심으로 거리 유세와 나들목 인사를 진행했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새벽 가스충전소에서 택시기사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편의점과 파크골프장 등을 찾는 생활밀착형 유세를 펼쳤다. 이어 조기축구장, 파크골프장, 종교시설, 공원 등을 돌며 생활밀착형 유세에 집중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종교시설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한 뒤 쌍암공원에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박은영 특별시의원 후보와 함께 첨단·수완·하남권 주거단지를 순회했다.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첨단종합운동장과 종교시설, 첨단먹자골목 등을 찾아 주민과의 접점을 넓혔다. 또 광산을 8개 동을 돌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첫 통합교육감 후보들도 집중 유세를 전개했다.

김대중 후보는 이날 첨단체육공원을 찾아 광산구청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하고 하남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등 광주권 유세에 주력했다.

이정선 후보는 광주 서석교회와 광주겨자씨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동구와 남구 다목적체육관, 광주대 조기축구회 현장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관호 후보는 이날 광주중앙교회와 월광교회를 찾아 신도들과 인사한 뒤 오후에는 목포로 이동해 서부권 집중 유세에 나서며 접촉면을 넓혔다.

풀뿌리 자치의 한 축인 광역·기초의원 후보들 역시 이번 주말과 휴일과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거리 유세에 매진했다.

각 후보 진영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 제고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출퇴근길 인사와 생활권 유세·온라인 홍보전을 병행하며 막판까지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임문영 광산을 보선 후보,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삼성전자 등 현장 찾아 미래산업 전환 방안 의견 공유

임문영 후보(왼쪽 세번째)는 최근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신소재산업 공장 등을 찾아 제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제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했다.

임문영 후보는 최근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신소재산업 공장 등을 찾아 제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운영 중인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 운영 현황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역 내 청년 인재 부족과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 등으로 일부 사업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공유됐다.

임 후보는 또 가전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거래처를 전환하며 지역에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신소재 기업을 찾아 제조업 현장의 변화상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는 숙련 기술자들의 품질 검사 능력을 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 후보는 “지역 제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공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련 기술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지역 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역량을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고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련 기술의 디지털화와 스마트공장 확산이 지역 제조업의 생존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임문영 후보는 “스마트공장 전환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고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형 AI 스마트제조 산업벨트 구축”

배수진 광산을 보선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AI 산업의 시너지를 살리는 ‘광주형 AI 스마트제조 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배수진 후보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3지구의 AI 인프라와 하남·평동·진곡산단 등 광산구 전통제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키고, 국가NPU센터, AI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등으로 산·학·연 연계 시너지를 살려 AI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광주는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조성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등 미래도시 도약의 외형적 조건을 갖췄으나 정작 AI 인프라가 첨단지구에만 머물며 지역 전통적 산업 현장과 분리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광주형 AI 스마트제조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꾀한다.

우선 산단 사이의 인프라를 연계한다. 첨단3지구의 AI 연산 인프라와 실증 장비망을 하남·평동·진곡산단과 디지털 관로로 직접 연결, 광산구 전통 제조 현장의 물류 자동화와 공정 제어 시스템에 접목해 산단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AI 기술을 전통 제조 공장에 실시간 매칭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차세대 반도체 기반 ‘국가 NPU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후속 국비 예산 확보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우홍섭 후보, 수산인 맞춤 지원 공약 발표

완도 어민 경영 부담 완화

우홍섭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사진**)가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수산인 맞춤형 지원 공약을 내놓으며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우 후보는 지난 29일 선박 수리비 지원과 수산장비 임대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산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완도 경제의 기반은 수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현장을 지키는 어민들이 있다”며 “어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수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엔진, 선박 크레인, 어구 등 어선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의 수리비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선박 수리비 지원 사례를 참고해 완도지역 어민들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는 “어선은 어민의 생업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엔진 고장이나 크레인 수리, 어구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군이 함께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장비 임대사업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척기와 전복선별기 등 고가의 수산장비를 군이 확보한 뒤 어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 후보는 “개별 어가가 모든 장비를 직접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수산 분야에도 장비 임대 체계를 구축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축수산업 소득 3조원 시대 열겠다”

윤영주 보성군수 후보, 평균 소득 2배 이상 약속도

무소속 윤영주 보성군수 후보(**사진**)가 농축수산업 구조 전환을 앞세워 ‘농축수산업 소득 3조원 시대’ 공약을 내걸었다.

6·3 지방선거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 후보는 최근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정책으로 ‘농축수산식품산업 소득 3조원 시대 개막’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재 약 1조원 규모인 보성군 농축수산업 소득을 임기 4년 차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가·어가·축산농가 평균 소득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지역 대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다. 녹차와 쌀, 쪽파, 꼬막 등 보성 주요 농수산물을 단순 생산·출하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유통 산업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소·돼지·염소·닭 가공공장을 건립해 축협 위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보성 한우’와 ‘녹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청년 스마트팜 단지와 득량만 스마트양식 도입 계획도 제시했다. 생산 자동화와 스마트 기술 기반 농수산업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가 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정부의 농어촌 주민수당 정책과 연계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가격안정기금, 재해보험 군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운영은 농수산주민참여협동조합 중심으로 추진해 수익이 농어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